

교권 회복 위한 대책 강화한다

전북교육청, 피해교사 치료·심리상담·법률자문 등 가해자 엄중 대응

전북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나섰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과 관련해 "현재 가해 학부모는 형사입건됐다"면서 욕설·폭력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

에게는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입원치료를 안내하는 등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또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 요양이 요구될 경우, 공무원 병가 및 공무원 질병휴직 등 인사 지

원을 전향적으로 해주기로 했다.

특히 법률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연계한 변호사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피해학급 학생과 동료교사들에게도 집단·개별상담 등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 고발을 하는 등 더 강력히 대응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도 교권 침해, 특히 교사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지금까지는 피해 교사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급적 해당 교사의 의사를 존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피해 교사의 의견과는 별개로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내년도 정시 지원전략 교사연수·설명회 개최

전북교육청은 2019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전략을 위한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및 진학부장 전문연수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한다. 또한 학생·학부모를 위한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연수는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및 고교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정시 대비 대입전형 주요 특징 및 대학별 정시 지원전략에 대해 대입 전문가의 강의가 있고, 전북대, 전남대, 전주교육대학의 입학담당자로부터 2019학년도 정시 지원전략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대가 지난 12일 대학본관에서 2018학년도 2학기 창업마일리지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호남권 유일 청년 스타 창업가 육성 장학사업 활발

전주대, 2012년부터 7년간 총 5억 3천만원 장학금 지급

전주대학교는 청년 스타창업가를 육성하고, 창업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지난 12일 대학본관에서 2018학년도 2학기 창업마일리지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에서 관광경영학과 봉준일 학생(28) 등 52명의 창업 장학생들이 4,500만원 상당의 창업 장학금을

받았다. 올해만 155명의 학생들에게 1억 2천만원의 창업 장학금을 주었다.

전주대 창업지원단은 대학 내 창업 분위기 확산과 창업활동 장려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7년간 총 5억3천만원의 창업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재학생들은 창업강좌 수강, 창업 동아리 활동, 창업 경진대회 참석 등 다양한 창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마일리를 받고,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서 창업을 위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창업지원단장 주정아 교수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을 갖춘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업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201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공립 유·초·특수교사 임용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9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 유치원 76명, 초등 159명, 특수유치원 9명, 특수초등 30명 등 총 274명(일반 269명, 장애 5명)이 합격했다.

합격선은 유치원(일반) 85점, 초등(일반) 79.5점, 특수유치원(일반) 73.67점, 특수초등(일반) 69.67점이며 개인별 합격여부 및 성적 확인은 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jte.go.kr>)에서 오늘 오후 6시까지 본인 인증시 조회가 가능하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한국사능력검

정 결과와 3급 이상인 자 중 제1차 시험 과목(교직논술, 교육과정) 별로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제1차 시험 성적, 대학성적 반영점수, 지역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의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합격인원은 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하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한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늘 6시까지(12시~13시 제외) 방문 및 등기우편

을 통해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기타 서류 등을 도교육청 행정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 제2차 시험은 내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주아중중학교에서 심층면접, 수업실연, 영어면접(초등), 영어수업실연(초등) 등의 과목으로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28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te.go.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전북대학교 한지훈 교수팀.

전북대 한지훈 교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소량의 전기로 고부가 화학제품 동시 생산 시스템 개발

전북대학교 한지훈 교수팀(공대 화학공학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뽑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연구개발의 우수 성과들을 공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선정해 온 것. 지난해 6월17일 국가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5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심사위원이 엄정한 심의를 통해 최근 발표했다.

'수소 및 고부가화학제품 동시 생산을 위한 미활용 탄소원을 이용한 전기화학 촉매 전환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 교수팀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됐다.

한 교수팀과 화학연구원 김형주 박사팀이 공동으로 수행중인 이 연구는 미활용되고 있는 탄소원을 활용해 전기화학 촉매 전환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기존 전기를 이용해 물을 분해

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방식에 비해 2배 이상의 적은 전기에너지로 과전압으로 유기산이나 알데하이드 등의 고부가 화학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이다.

화학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인 바이오디젤 생산 시 부산물로 대량 얻어지는 글리세롤로부터 수소 및 고부가 화학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공정기술도 확보했다.

향후 관심 기업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실제 상용화도 추진되고 있어 이 연구가 더욱 주목된다.

이 연구를 이끌고 있는 한지훈 교수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적은 전기에너지로 고부가 화학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확보했다는 데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며 "친환경적인 데다, 수입 의존성이 큰 화학 연료에 대한 자립도도 향상시킬 수 있어 국내 산업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전공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018학년도 전공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의 학술적 글 쓰기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키고, 좋은 보고서 쓰기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공모전을 통해 학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과목의 세부적 지식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4회째를 맞아 10팀, 35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을 받은 김OO 학생은 "전공 논문공모전을 통해 지도교수님과 함께 전공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강희성 총장은 "전공논문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학문적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 연구인재로서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고창군**

고창군관광사슴지